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4. 3.(월)

원희룡 장관, “무정차 통과 대책 전면 백지화 특별지시”

- 3일 열차운행 증가 등 혼잡도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주문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일(월) 제주 4.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서울에 도착한 즉시,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무정차 통과 논란과 관련 긴급회의를 직접 소집하였다. 이 회의에서 원 장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, 철도국 등 관련부서로부터 정확한 상황을 보고받은 후,
 - ‘무정차 통과를 전면 백지화’ 하도록 특별지시하고, ‘열차 편성 증대’, ‘운행횟수 확대’ 등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다.
- 이날, 원 장관은 “무정차 통과 대책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 예시로 검토되었던 것이지만,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,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, 전면 백지화를 하라”고 지시하였으며,
 - “오히려 어려움이 있고,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차량편성·열차 운행 횟수 확대, 승강장 확장 등 수송용량을 증대하여 도시철도 혼잡상황을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”하다고 강조하였다.
- 아울러, 원 장관은 “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 등으로 무정차 통과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, 현재에도 관계기관 간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”이라며,

- “도시철도의 혼잡위험도에 관한 재난관리 대책이 출·퇴근 등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되어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주게 된다”면서 관련부서에 특별지시를 하였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임연우 (044-201-4602)

